

치사

한 해를 차분하게 돌아보고 내가 이룬 성취를 여러 사람의 복덕으로 나누는 향기로운 계절입니다. 이렇게 훈훈한 마음으로 생명의 소중함과 자비의 실천을 위하여 함께 해주신 사부대중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무척이나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질에 우선하고 도덕질서의 훼손, 정신의 가치를 소홀히 여겨 인간 존엄과 생명의 소중함이 점점 경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개인이 겪는 고통과 분노, 상실감은 급기야 우울증과 폭력, 자살 등 심각한 사회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자리의 의미는 더욱 향기롭고 서로에게 너무도 고마운 일입니다.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는 부처님 법안에서 평등하며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를 위하여 고통 받는 우리 이웃들과 아픔을 함께하고 그 마음을 보듬어 주는 보살행의 실천이 곧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자비의 전화는 우리 이웃들이 겪는 정신적 소외와 박탈감을 보듬어주기 위하여 시작한 불교계의 작은 노력이었습니다. 이러한 작은 물줄기가 불교상담개발원이라는 지혜의 그릇으로 성장하여 마침내는 불교 상담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불교상담대학원 설립 및 교육관 불사’라는 큰 원력을 세우는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후원의 밤’ 행사는 불교 상담을 통해 부처님의 동체대비 사상을 구현하고 포교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특히 많은 사부대중 여러분들께서 기증해 주신 소장품들과 후원, 그리고 격려의 마음은 종단은 물론 불교상담 발전의

커다란 토대가 되어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계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모두의 행복과 바른 사회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불
교상담대학원 설립추진위원님들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불교상담 발전의 초석이 되어줄 후원의 밤
불사가 원만성취하기를 깊은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소중한 정성으로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광
명이 늘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8년(2014) 11월 25일

불교상담대학원설립추진위원회 증명

자 승

대 한 불 교 조 계 종 총 무 원 장